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SEPTEMBER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1



8월 골든클럽 Wallkill 골프대회

8월 21일 Wallkill Golf Club에서 22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골든클럽 골프대회를 가졌다. 태풍의 영향으로 노심초사하였으나 다행히 새벽에 비가 오지만 rounding하는 시간에는 비 소식이 있지 않아 대회를 할수 있었다. 나중에 햇빛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덥지 않고 골프를 즐기기에 쾌적한 날씨였다.

이번 골프대회는 시작부터 다이내믹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한 회원이 아침일찍 몸이 좋지 않아 불참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으며 또 다른 한 회원은 지난 밤부터 피통을 싸는 상황 (나중에 알고 보니 애완견 이야기였음)을 겪어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서 참석하기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회원은 10시에 전화가 와서 지금 출발하니 좀 늦을 것이라고 했다. 골프 rounding의 조편성을 당일 아침에 갑작

스런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번에 Random으로 조편성을 시행하여 보았는데 새로운 회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좋았다. 골프장의 배려로 인원수가 적었음에도 shotgun방식으로 play할 수 있어 대회를 일찍 마쳤다. 원래 White Tee에서 치던 회원은 Gold Tee에서 치기도 하고 White Tee에서 치기도 하였다.



단풍관광 여행 10월 16일

지난 7월 Longwood Garden 방문에 이어 다시 케츠킬 지역으로 버스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에서 단풍을 즐기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 * 오전 8시 30분; 한양마트 출발 Flushing
- * 오전 9시 15분 : 한남체인 출발 Palisades Park, NJ.,
- * 11시 30분 North & South Lake 도착 (약120 miles, 운전 시간 2시간 10분)
- * 오후 12시 - 1시 North Lake Pavilion에서 점심 식사
- * 1시- 3시 - 단풍관광 하이킹 및 레크레이션 시간
- * 3시 North & South Lake 출발
- * 오후 5시 15분 한남체인 도착
- * 오후 6시 30분 플러싱 한양마트 도착



9월 Meadows Golf 대회



9월 골든클럽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석 기본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shot gun 으로 할 수 있으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저녁식사와 시상식은 김기태 동문이 운영하는 Alexis Steak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 날짜: 9월 25일 (목)
- * 골프장: Meadows Golf Club
- * 주소: 79 2 Bridges Rd
Lincoln Park, NJ 07035
- * 시간: 11시 (shot gun) 10시까지 도착바랍니다.
- * 회비: \$120
- * 등록: 김병순 (703-407-4928)
kbs8717@gmail.com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이름: 문 선
(최한용 (농대58) 가족)
영문: Sun Moon
전화: 516-234-4544
주소: 27010 Grand Central Parkway #33E
Floral Park, NY 11005





입상자: 최병우 홍예경 한용희 이대영 홍종만



Close Pin: 조승자 김문언 김병순 김광현



박상원 윤선구 김병순 조

Walkkill Gold 대회 입상자

시상	Hole	이름	성적
Close pin	3	김병순	22'10"
	7	김문언	12'2"
	11	조승자	9'2"
	15	김광현	11'0"
1등		한용희	-8 (27)
2등		이대영	-5 (13)
		김병순	-4 (28)
3등		홍예경	-3 (25)
		홍종만	-2 (32)
		최병우	+1 (24)

보다 재미있는 골프대회를 위하여

저희 골든클럽 월례 골프대회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경기 방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익숙하시겠지만, 팀 대항전이나 다른 방식의 플레이를 도입하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1. 스크램블 (Scramble)

이 방식은 실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팀 플레이입니다.

진행 방식: 3~4명이 한 팀이 되어 팀원 모두가 티샷을 합니다. 그중 가장 잘 맞은 공을 선택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자신의 공을 선택된 지점으로 옮겨서 다음 샷을 합니다. 이 과정을 좋아 웃할 때까지 반복하며, 최종 점수는 팀의 점수가 됩니다.

장점: 실력이 부족한 팀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팀워크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팀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해져서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형: 포섬 스크램블(Foursome Scramble)을 응용해,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베스트볼 (Best Ball)

팀원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진행 방식: 2~4명이 한 팀이 되어 각자 자신의 공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각 홀마다 팀원 중 가장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의 점수를 팀의 점수로 합산합니다.

장점: 모두가 부담 없이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고, 잘 맞지 않는 홀이 있더라도 팀원의 좋은 점수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변형: 팀원의 핸디캡을 반영하여 경기를 진행하면 더욱 공정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습니다.

3. 스테이블포드 방식 (Stableford Scoring)

타수가 아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진행 방식: 각 홀의 타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파(Par)는 2점, 버디(Birdie)는 3점, 이글(Eagle)은 4점 등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반면 더블보기(Double Bogey)는 0점, 트리플보기(Triple Bogey)는 -1점처럼 점수를 잃게 합니다. 최종적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장점: 타수를 많이 잃은 홀은 빠르게 포기하고 다음 홀을 준비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변형: 점수 부여 기준을 모임의 실력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블보기는 1점, 트리플보기는 0점으로 바꾸는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걸었던 불세출(不世出)의 길, 그의 그림에 남겨진 꿈

■ 김광현 (미대57)

아돌프 히틀러는 끔찍한 인류의 비극을 초래한 독재자로 기억되지만, 그의 청년 시절에는 화가라는 꿈을 품고 살았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화가로서의 꿈을 이루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의 그림을 통해, 인간 히틀러가 걸어온 길과 그가 남긴 예술적 흔적을 따라가 봅시다.

미술가 아돌프 히틀러의 시작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국경 도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이며 화가가 되길 꿈꿨습니다. 엄격하고 술을 즐겨하던 아버지 알로이스는 그가 자신처럼 공무원이 되길 바랐지만, 히틀러는 아버지의 꿈을 거부하고 미술에 매진했습니다. 아버지는 히틀러가 13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히틀러는 부친의 연금과 유산으로 생활을 이어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16세에 학업을 중단한 그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인 빈으로 향했습니다. 예술의 도시 빈에서 그는 화가로서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품었으나, 19세 되던 해에 지원한 빈 국립미술아카데미 입학 시험에서 두 번이나 낙방하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당시 미술 사조는 입체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 새로운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의 그림은 모방성과 정밀 묘사에 치중했을 뿐 시대적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교장은 그에게 건축 분야로 나아가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좌절된 꿈, 상업 화가로 생계 유지

연이은 낙방과 어머니의 사망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히틀러는 노동자 합숙소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주로 건축물을 배경으로 한 풍경화나 작은 그림엽서를 그려 팔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화상', '마리아의 어린 예수 상'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알려진 작품은 약 700여 점에 달하며, 실제로 그의 그림들은 훗날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그의 풍경화, 정물화 등 14점이 한화 약 4억 9,0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화가에서 군인, 그리고 정치인으로

히틀러는 24세가 되던 해에 화가로서의 꿈을 완전히 접고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독일군에 자원입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철십자 훈장'을 받으며 군인의 길을 걸었고, 1920년 육군에서 제대했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정치 활동에 관여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결국 1933년 독일의 수상이 되었고, 1945년 사망할 때까지 독재자로 군림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그림은 특별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술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했던 한 청년이 어떻게 인류 최악의 독재자가 되었는지, 그의 그림들은 말 없는 증언처럼 남아 있습니다.



'갈스키르헤'의 겨울 교회 (1912)



Vienna State Opera (1912) by Adolf Hitler; [Adolf Hitl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비엔나의 오페라 하우스 (1913)



마리아와 어린 예수 상 (1913)

이전구 회원 (농대60) 인터뷰

하모니카와 골프, 그리고 삶의 도전

이번호에서는 농대60학번(41년생) 이전구 선배님을 모시고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은 기억에 없지만 6.25 전쟁을 겪고, 미국 이민 1세대 선구자로 태권도와 골프 비즈니스, 그리고 농장 경영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온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았습니다.

미국 이민, 태권도 그리고 독립

이전구 선배님의 미국 생활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미국에 정착해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큰 명성을 얻고 있던 친형 이준구(유명하신 태권도 사범)의 영향이 컸습니다. 선배님은 형님 밑에서 태권도장 매니저로 일하며 워싱턴 D.C.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 당시 애넌데일에는 한인들이 거의 없었지만 선배님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지금의 한인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님 밑에서 일하며 매니저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선배님은 '이준구 동생'이라는 꼬리표 대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독립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형님 그늘 아래서는 내 이름이 없지"라고 회고하며, 1984년 뉴욕으로 옮겨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당시 막 골프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였고, 선배님은 친구들과 함께 **뉴욕골프**라는 골프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모니카와 절대음감, 그리고 뜻밖의 재능

이전구 선배님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논산 훈련소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하모니카를 독학으로 연주하기 시작했고, 절대음감을 바탕으로 악보 없이도 완벽한 연주를 해냈습니다. 그는 종종 음악회나 행사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선보였는데, 특히 서울대 동창회 음악회에서는 세계적 테너 파바로티처럼 악보 없이 연주를 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때는 조가 바뀔 때마다 다른 하모니카로 바꿔 연주해야 하는데, 선배님은 4개의 하모니카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연주했습니다. 이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음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하모니카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재능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손자도 어린 나이부터 반음을 정확하게 찾아내며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지인들은 "나랑 꼭 닮은 것 같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비즈니스와 기억에 남는 손님들

뉴욕 골프는 예상보다 훨씬 잘 났습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돈을 못살렸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많은 이들이 뉴욕 골프를 찾았는데, 모로코 총리처럼 자신의 왕에게 선물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유명 인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방문할 뻔한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경호팀이 미리 와서 보안 점검까지 했지만 돌연 계획이 변경되어 아쉽게도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덕화, 신영균 등 많은 유명 연예인들도 단골손님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영균 배우와의 일화는 흥미롭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매장을 방문한 그가 아내분에게 웃음을 흥정하다 "나 신영균



(왼쪽부터) 큰며느리와 큰 아들 창우, 본인, 손자 정현, wife 회장님, 작은며느리, 손녀 정민 작은아들 현경



2000년 링컨센터에서 아메리칸 심포니와 하모니카 협연이야!"라고 말하자, 아내분이 "안경 벗어보세요"라고 말해 결국 신영균 배우가 웃으며 안경을 벗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농대로 이어진 인생, 그리고 염전 피해 보상 투쟁

이전구 선배님은 수원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와 서울대 농대를 거치며 농업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아버지의 운수업을 돕다가 염전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1970년대 남양만 방조제 공사로 인해 염전 사업이 어려워지자 25살의 나이에 '염전 피해 보상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정부와 3년간 투쟁한 끝에 결국 보상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농장을 구입하여 경영하고 있지만, "몸이 마음처럼 안 따라준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농장에서 풀을 뽑고 텃밭을 가꾸는 일은 선배님의 건강 유지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전구 선배님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담은 ****'골프 인생****이라는 글을 10여 년 전에 썼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걸 한번 그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찾아보면 참고가 되겠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답정리 김병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플라시보(Placebo) 및 노시보(Nocebo) 효과, 그리고 프레임 법칙(Frame effect)

■ 김영천 (약대72)

플라시보 효과는 라틴어 placēbō("내가 기쁘게 할 것이다")에서 유래합니다. 1955년 헨리 비처의 논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위약효과(偽藥效果)는 실제 약 성분이 없어도 치료 효과에 대한 믿음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인정된 효과로, 만성질환이나 심리적 영향이 큰 질환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1961년 월터 케네디는 플라시보의 반대 개념으로 '노시보(해를 끼친다)'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플라시보는 긍정적인 효과를, 노시보는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뜻합니다. 케네디는 노시보가 환자에게 내재된 특성에서 비롯된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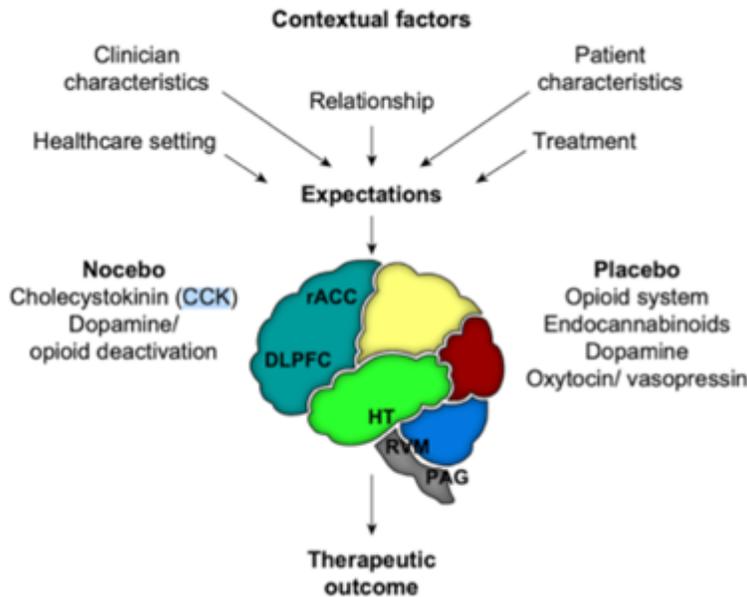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 이야기: 1950년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와인상자를 하역한후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창고에서 한 선원이 얼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선원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동료가 냉동창고의 문을 잠겨버렸습니다. 자신이 냉동창고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선원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냉동창고 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지만 선원은 자신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원은 고통과 죽어가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생생하게 냉동창고 벽에 기록하였습니다. 배가 리스

본에 도착한 후, 선장과 동료들은 냉동창고 안에 죽어 있는 선원과 그가 벽에 쓴 고통과 죽음의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장은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컨테이너 속의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은 실내온도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 19도였습니다.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는 포도주를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 전에 냉동창고의 전원을 꺼 놓았습니다. 심지어 냉동창고의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공기도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선원의 모습은 그 누가 보더라도 극심한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원은 얼어 죽었을까요?

최근 미국과 그리스, 덴마크, 이탈리아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호소하는 두통과 피로감과 같은 부작용 증상들의 76%, 두 번째 접종 후 거의 52%는 위약 효과(Placebo effect)의 부정적인 버전인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

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연구(George Litchfield, "Pain and psychology research news")에 따르면, 부정적인 기대(노시보 효과)는 긍정적인 기대(플라시보 효과)보다 통증 인식에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세션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나쁜 결과를 예상할 때 더 강한 통증을 보고했고, 기대에 따른 통증 완화 효과는 덜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주일 후에도 관찰되었으며, 뇌가 인지된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는 임상 환경에서 부정적인 프레이밍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환자의 기대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과 클라인만에 따르면, 플라시보 의식에서 노시보 결과가 나타나거나, 노시보 의식에서 플라시보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용어의 복잡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시드니 병원에서 암 치료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쓴 밀턴은 예후 전달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환자들이 예후를 전달받은 후 벽을 바라보다 조기 사망하는 사례를 관찰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임박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악성 종양이 치명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도 빠른 사망에 이르는 소수의 환자 그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원시 사회에서 주술 행위로 인한 죽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비교되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플라세보-노시보 효과는 프레임 이론과 비슷합니다. 프레임은 관점이나 사고의 틀로,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심리적 창을 뜻합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세계관 같은 인지 구조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명아주 국물마저 없었고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자 안회가 쌀을 구해 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멀리서 안회가 솥에서 밥을 집어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안회가 상을 차려 밥을 권하자, 공자는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었다며 밥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안회는 술에 재가 들어가 그 부분을 걷어 먹었으며, 밥을 버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자는 이를 듣고, 사람의 눈이나 마음도 항상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안회의 행동을 의심했던 자신을 되돌아본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는 "기도 중에 흡연이 가능한지 랍비에게 문의해보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세실은 랍비에게 다가가 기도 중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질문했으며, 랍비는 기도가 신과의 엄숙한 대화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모리스가 흡연 중 기도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랍비는 기도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흡연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한번 형성되면 변하기 어렵고, 이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는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Placebo)와 노시보(Nocebo) 효과, 그리고 프레임의 법칙은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화엄경>의 핵심사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일체유심조와 관련해서는 원효대사의 해골 바가지 물 일화가 자주 언급되며, 유식불교에서는 '일수사건'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물이라도 천상의 존재에게는 보배로,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물로, 물고기에게는 서식지로, 아귀에게는 피고름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즉, 동일한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시각이 유일하거나 절대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타인과의 갈등이나 부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Gabriel José de la Concordia García Márquez, 1982년 노벨문학상)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과거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르케스의 명언은 현재의 선택이 과거의 해석과 감정에 영향을 주어, 과거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그때 그렇게 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일부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은 미래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역행성(역인과율)' 개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드니대학교의 로드 서털랜드 박사는 양자역학 분야에서 역행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벨 정리(Bell's theorem)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한 측정(weak measurement)

기술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미래의 측정 선택이 과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데이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 사건이 과거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는 관측이 시스템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원리입니다.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그 상태가 결정되며, 이는 인간 행동과 감정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양지선과 이창훈(2025)은 「Psychoanalysis」 제36권 1호에 실린 '카프카의 「변신」의 양자-정신분석적 재해석' 논문에서, 양자심리학 관점이 심리 상태를 단일한 실체로 국한하지 않고 복수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중첩(superposition)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플라시보(Placebo)와 노시보(Nocebo) 효과, 그리고 프레임의 법칙은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드대학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원 8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절반에게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를 설명하고, 나머지 절반에는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운동 효과를 들은 그룹에서는 복부 지방, 혈압, 체중이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으나,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은 업무 인식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복과 불행이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상태는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되며, 특정한 타인 또는 사건이 직접적으로 행복이나 불행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역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과거의 집착이나 번뇌였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의 어려움 역시 결국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나 사회적 이슈에만 집중할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경우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각자가 무엇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해석하는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모든 사실은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진실로 여겨질 수 있으며, 마음가짐이나 신념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견해에 따르면, 달을 바라보고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달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난이 있더라도, 심리적 태도에 따라 행복이나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만약 극심한 고통이나 미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과거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 명단 (113명 / 2025-8-25)

강교숙	김상만	박상원	오순문	이대영	정해민	허용웅 허유선 홍정표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박준구	오용호	이영범	조상선	
강영선	김영덕	박희병	오인석	이용대	주재양	
계동휘	김영만	배상규	우규환	이위곤	진봉일	
고애자	김우영	성기로	유무영	이전구	천병수	
곽선섭	김익성	손갑수	육재희	이종대	천종화	
권문웅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이종석	최병우	
권정덕	김창수	손대홍	윤상영	이준행	최준희	
홍선경	김충정	남종현	윤재욱	이흥빈	최진영	
권태전	김치갑	손옥화	윤현남	임도혁	최한용	
금영천	김태일	송근숙	이강홍	임호순	최학주	
김광수	김현중	송웅길	이민제	전문준	한민우	
김광현	노승만	송현자	이상무	정도현	한영우	
김동건	노용면	송학린	이상준	정수일	한용오	
김문경	문 선	송혜순	이승준	조달훈	한태진	
김문언	민준기	신진식	이 준	조승자	한용희	
김병순	박기환	신응남	이대연	정준영		

2025년 연회비 납부 명단 80명 / \$8000 / 2025-8-25

강교숙	김상만	박준구	신진식	이승준	정수일	최한용 한민우 한용오 한태진 안용희 홍정표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박희병	이상원	이영범	정준영	
계동휘	김영만	배상규	오순문	이용대	정해민	
곽선섭	김우영	성기로	오용호	이위곤	조달훈	
권문웅	김익성	손갑수	우규환	이전구	조승자	
권정덕	김정필	손경택	육재희	이종대	조상선	
홍선경	김충정	송근숙	윤상영	이종석	주상선	
권태전	김한중	송웅길	윤선구	이흥빈	천병수	
금영천	김현중	송현자	이대연	이행순	천종화	
김광현	문 선	송학린	이대영	임도혁	최병우	
김광순	민준기	송혜순	이강홍	임호순	최순채	
김병순	박기환	신두식	이상무	전문준	최준희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28명 / \$13,300 2025-8-25)

강에드 300	배상규 200	이상원 100	임호순 300
계동휘 300	성기로 500	이영범 300	전문준 500
권정덕 500	손경택 1500	이용대 300	정해민 2500
금영천 300	송혜순 200	이위곤 100	최준희 300
김상만 100	신진식 300	이전구 1000	최한용 500
김육수 200	오용호 300	이종대 200	한태진 500
김한중 300	이강홍 5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2025년 입회비 납부 명단

전문준	육재희
정준영	문 선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5-8-25)

3월	13(목)	하이킹 (취소)
	22(토)	신년교례회 (82명 참가)
4월	10(목)	하이킹 (6명참가)
	24(목)	골프대회 - Sunset Valley (28명참가)
5월	22(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 Pelham
	29(목)	Metropolitan Museum 방문
6월	12(목)	Family Picnic (Alpine Pavillion)
	26(목)	골프대회 - Walkil Golf Club (취소)
7월	24(목)	골프대회 - Hundson Hills (32명 참석)
	31(목)	Longwood Garden 방문 (36명 참석)
8월	21(목)	골프대회 - Walkill Golf Club (22명 참석)
9월	25(목)	골프대회 - Meadows Golf Club
10월	16(목)	단풍관광
	23(목)	뉴욕동창회 골프대회
12월	6(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7-13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1일(토)	2026년 신년교례회

9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곽승용 (의대65)
- 김광현 (미대57)
- 송학린 (법대59)
- 이행순 (미대60)
- 최순채 (의대60)
- 허용웅 (상대63)
- 홍예경 (가족)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